

교회의 본질성 회복을 위한 디아코니아 연구

유 장 춘
<사회복지학 · 조교수>
jcyoo@kbtus.ac.kr

서론: 교회본질 연구의 필요성

1. 문제제기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면 교회성장운동과 교회갱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성장운동은 현대 사회의 종교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침체되어 가는 현실에 도전하여 교회부흥을 우선순위에 설정하고 복음전도에 총력집중 하는 운동이다. 반면에 교회갱신운동은 종교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고 교회의 쇄신과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따라서 전자는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추어 모여 들게 하는 운동이라 한다면 후자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변화시키면서 퍼져 나가게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세상으로부터’의 운동이라면 후자는 ‘세상 속으로’의 운동이고 전자가 ‘불러내는’ 운동으로서 외적 성장에 초점을 둔 실천이라면 후자는 ‘참여하는’ 운동으로서 내적 성장에 무게를 둔 실천이다. 결국 전자는 교회의 에클레시아(εκκλησία)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는 교회의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α)적인 전통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 둘 중에서 20세기 한국교회를 지배해 온 흐름은 교회성장운동이었다. 교회성장은 교회의 목표요, 과제요, 평가의 기준이었다. 교회마다 “총동원전도”가 캐치프레이드였으며 교회성장세미나가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 이데올로기’(growth ideology)와 교회주의(churchism)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교회의 갱신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교회성장은 개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지상과제였다면 교회갱신은 신학자들과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화두처럼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성장운동에 발맞춰 198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교회는 90년대에 들어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20%에 이르고² 교회의 시설과 재정과 조직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교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크게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³ 1990년대 초

¹ 에클레시아(εκκλησία)는 “밖으로 모인 무리”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α)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둘 다 신약교회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단어들이다. J. C. 호켄다이크, 『흩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15 이하를 참조하라.

² 1995년 11월 1일 통계청 조사를 기준으로 개신교의 인구는 8,760,336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9.7%를 차지했다. 문화체육부, 『한국의 종교현황』, 1997년, 7-9.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이 발표한 94년과 95년의 교세현황에 따르면 평균 1% 이하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독교신보 95년 10월 14일. 한국기독교공보, 1996년 2월 2일.

³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 위원장: 이동원 목사)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작성된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에 제시된 표와 같이 개신교는 천주교나 불교보다 충성도가 떨어지고 이탈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개신교의 새신자 유입 가능성이 불교나 천주교에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은 기독교(개신교)의 성장가능성에

반까지 한국교회를 논할 때에는 한국교회는 왜 성장하는가? 그리고 그 성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기에 다다른 오늘에 와서는 왜 한국교회는 정체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하게 되었다. 교회성장이론에 근거한 다양한 전략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교회의 전체적 흐름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왜 교회성장은 멈추었는가?”라는 질문은 그 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이 교회성장론의 이론에 의해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성장과 교회갱신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우리 만치 당연한 것이었다. 교회성장을 위해서 교회갱신을 등한히 해온 한국교회에게 그 동안 교회의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언하고 경고하던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고 이제는 그들이 제언해오던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성장과 교회갱신을 모두 성취해야만 하는 절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교회성장을 위해서 교회갱신을 외면할 수 없고 교회갱신을 위해서 교회성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원규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적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준·한국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빛과 소금』 (1998년 11월호), 22-37.

<표> 종교 이동 유형 (%)

현재종교 \ 과거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비종교	계
개신교	53.9	9.0	1.9	35.1	100.0
불교	8.7	70.6	2.7	17.9	100.0
천주교	4.3	5.3	60.1	30.3	100.0

<표> 개종/신앙 의향 종교 (%)

	사례수	개신교	천주교	불교	계
전 체	206	23.3	37.4	40.3	100.0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어떻게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한국교회가 사회적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⁴

‘지속적인 교회성장’과 ‘사회적 공신력의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을 상실한 교회는 성장해도 의미가 없고 본질의 회복이 없는 교회갱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즉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 봉사), 케리그마(κήρυγμα: 선포),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 교제)이다. 그 동안 교회는 교회성장적 측면에서 케리그마, 즉 복음의 전도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코이노니아는 교회 내적인 부분만 강조하여 그 다른 절반인 외적인 교제는 무시하였으며 디아코니아는 상대적으로 외면하였다. 따라서 교회갱신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디아코니아적 측면 즉 교회의 사회봉사적 사역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의미들이 서로 상통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제일 첫 부분에서는 교회의 본질로서 디아코니아를 설명하고 둘째 부분에서 교회의 본질로서 케리그마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디아코니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같은 형태로 코이노니아를 논하였다. 각 부분은 네 개의 소제목을 통하여 용어의 의미와 성서적 또는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이것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⁴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10.

갖고 있는지를 말하였으며 다시 디아코니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 교회의 본질과 교회사회봉사의 관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일체의 교회성장과 교회갱신을 논의하는 일보다 우선적인 과제이다.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들이 걸어온 길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⁵ 또 그래서도 안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교회의 사회봉사적 활동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먼저 교회의 본질은 왜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라는 세 개의 개념으로 형성되어있는가를 의논해야 할 것이다.

본회퍼는 교회의 본질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⁶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보았다. 교회는 한 인간(one man)이다.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며 따라서 교회는 한 인간이다. 즉 새로운 인간, 이 새 인간은 하나인 바 그것은 그리스도이며 교회이다. 그리스도는 새 인간 안에 있는 새 인간성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라고 하였다.

둘째로, ‘교회는 현장’이라고 보았다. 교회는 선한 것과 속된 것이 하나되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의 참된 현존이다.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하여 기독교자와 비기독교자가 하나가 되는 장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⁵ 한스 쾅은 “교회의 역할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역사적 분석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일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는 분명히 교회에 대한 신학적 연구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Hans Kung, *The Church* (London: Search Press, 1971), 484.

⁶ Tame W. Waelfel *Bonfaeffer's Theology* (New York: Abingdon Press, 1970), 165. 디이트리히 본회퍼, 『나를 따르라』,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36. 디이트리히 본회퍼, 『옥중서간』, 50.

셋째로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 보았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지배가 아니라 도와주고 봉사함으로 관여한다. 오만, 권력숭배, 사기와 환상주의 모두를 악의 근원으로 보고 저항한다. 대상은 죄이고 방법은 저항이다. 성숙한 세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비종교적 해석이라고 한다.

본회퍼가 제시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세 개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복음의 선포(*Kerygma*), 사랑의 친교(*Koinonia*),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봉사(*Diakonia*)다. 교회는 복음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케리그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코이노니아다. 그리고 교회의 봉사적 역할은 디아코니아로 설명된다.⁷ 조지 웨버(*George Weber*)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의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이고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다. 그리고 삼각을 이루는 세 번째가 케리그마”⁸라고 말한다. 이성희는 이 세 가지를 교회의 3대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케리그마의 내적 기운이 코이노니아라면 케리그마의 외적 작용은 디아코니아다. 즉 케리그마는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에서 완성된다고 하였다.⁹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교역을 모델로 할 때 분명해진 다.¹⁰ 예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⁷ 김성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사회사업의 방향성에 관한 일 고찰,”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1992), 37 (37-53), 자크 엘룰은 교회의 특별한 임무를 나타내는 세 가지를 소금과 빛 그리고 양으로 정의하고 있다. Jacques Ellul, *The Presence of the Kingdom*, trans. Olive Wyon (New York: Seabury Press, 1967), 9-11.

⁸ George Webber, “목회의 전문화와 영성,” 『목회의 전문화와 영성』, 제4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유니온학술자료원, 1989), 35.

⁹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21세기 한국교회 메가 트렌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47.

¹⁰ 조종남 편저, 『로잔: 세계복음화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IVP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0), 26

(요 20:21下)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내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보내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설명하고 있다.¹¹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이며 그와 분리할 수 없는 유기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교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과 그 활동의 내용, 더 나아가 그 성장의 모델은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¹²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을 육신화(incarnation) 하셨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공동체화 해야 한다. 이 ‘공동체화 된 예수 그리스도’는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로 성취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선교의 개념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통전적 선교(wholistic mission)의 개념이 될 것이다. 이전까지의 선교는 개인의 영혼을 중심으로 개(個)교회를 위한 전도 또는 교회성장이라는 제한된 개념이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개인을 포함하는 타자 중심적 사회봉사 혹은 사회참여의 진보된 개념까지를 포함하는 통전적 개념으로 선교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 모델은 다음과 같다.

$$M = P.S + S.R$$

$$M = E + N + S (SS + SA) + F$$

선교(mission)는 개인 구원(Personal Salvation)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합친 것으로서 이것을 좀더 세분화하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evangelism)와 설교, 교육, 상담, 심방 등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

¹¹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과 머리 또는 몸과 지체로서 설명한 신약성경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에베소서 5장 30절,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18절.

¹² 김영국, 「그리스도의 공동체」(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155.

(nurture)과 사회 현상의 결과 위주로 사역하는 사회봉사(social service)와 문제 원인을 수정하거나 근절하는 활동을 뜻하는 사회행동(social action), 그리고 작고 큰 단위의 교회들의 교제, 나눔, 협력 등을 의미하는 친교(fellowship)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¹³ 이와 같은 선교의 통전적 의미는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¹⁴

이제부터 교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말씀의 증거(Kerygma)와 교제(Koinonia)가 봉사(Diakonia)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교회의 사회봉사적 사명의 중요성과 그 위치를 밝히고자 한다.

II. 교회의 본질로서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

1. 용어연구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δία(dia: 통하여)라는 단어와 κονία(konia: 먼지)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먼지 가운데로 지나서 가는” 의미를 통해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나타낸다. 신약성경에서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용어는 둘레오(δουλεύω: 노예로서 섬김), 데라퓨오(θεραπέω: 존경에 대한 표현으로서 섬기려는 의지를 강조함), 라트류오(λατρεύω: 보상을 위해 섬김), 레이투레오(λειτουργέω: 백성들을 위해 공적으로 섬김), 우페레테오(ὑπερετέω: 조수로서 섬김) 등 여러 단어가 있지만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는 “사랑의 섬김”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매우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보내어진 섬김의 형태를 지적한다.¹⁵ 디아코니아는 ‘시중들다,’ ‘봉사하다’라는

¹³ 서정운, “2000년대를 향한 선교신학,” 장신대 출판부 편, 『신학과 교육』 (서울: 장신대 출판부, 1992), 198-89.

¹⁴ 호켄다이크는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이 세 가지 면은 우리의 전도사업에 통합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의 전도 방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호켄다이크, 22.

¹⁵ Gerhard Kittel,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의미를 가진 디아코네인(δίακονεῖν)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 디아코네오(δίακοίω), 디아코노스(δίακονος)와 함께 디아콘(δίακον) 어근에 속한 단어로써 봉사, 구제, 혹은 섬기는 일을 의미하며 디아코니아를 담당하는 사람인 섬기는 자, 봉사자, 사환을 디아코노스(δίακονος)라고 한다. 신약성경에는 디아코네인이 35회 디아코니아가 34회, 디아코노스가 29회 나타나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되었다.¹⁶ 신약성경에서 디아코니아는 원래 “식탁에서 기다림” 또는 육체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 관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¹⁷ 한편으로 진실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봉사의 섬김 형태를 나타냈다.¹⁸

2. 신약의 디아코니아 정신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쓸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하는 봉사를 말한다.¹⁹ 설사 봉사의 내용이 같아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한다는 동기가 부여된 것만 디아코니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최초의 봉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근거한 디아코니아란 무엇인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식은 디아코니아의 표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²⁰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Vol. II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4), 81.

¹⁶ 박창환, “신약성경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와 한국교회』 (서울: 디아코니아 예수봉사단, 1995), 7.

¹⁷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δίακονίαν)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사도행전 6장 1절. 초대교회에서의 만찬을 준비하는 일로서 δίακονία καθημερινή라고 하였다.

¹⁸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¹⁹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2), 11-2.

²⁰ 이성희, 251.

식사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고 피를 “함께 나누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그리스도의 만찬은 참여와 분배의 모범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참여를 코이노니아라고 한다면 분배는 디아코니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케리그마이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분배의 실천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에 대한 명령이다. 그러므로 성만찬의 삶은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분배하라고 하신 대로 분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떡을 주실 때에 이것이 떡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몸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피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몸을 주는 장기기증 운동과 피를 나누주는 헌혈은 성만찬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을 나누는 일이다.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일, 시간과 노력, 자산과 소유를 함께 나누는 삶이 성만찬의 삶이요 디아코니아의 실천이다.

조지 웨버는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 바가 있다.²¹ 그 첫째로 디아코니아는 이 사회의 부정과 불의한 구조에 대하여 항의하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²²고 말했다는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만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저항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계, 말할 수 없이 문제가 많은 세계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만들자는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웨버는 디아코니아 정신의 둘째 의미를 사회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향한

²¹ 조지 웨버, 33-5.

²² 에베소서 6장 12절(개역).

섬김이라고 설명한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디아코니아 정신의 셋째 의미는 세상의 부정, 빈곤, 폭력 같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교회가 담당해야 할 예언자적 사명 곧 사회행동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3. 교회의 본질과 디아코니아.

시켈(J.C. Sikkel, 1890)은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산다 그러나 봉사(*diakonia*) 없는 교회는 죽는다”고 말했다.²³ 디아코니아를 교회의 생존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신약교회의 흐름 속에서 이 디아코니아의 중요성은 선명하게 나타난다. 신약의 교회가 처음 직제를 가지게 된 것은 사도행전 6장 1-7의 ‘사도-회중’ 모델에서 나타난다.²⁴ 처음 교회는 많은 제지를 가졌고 사도들은 매일의 구제에 열중하였으나 헬라의 제자 집단에서는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공회에서 제외된다고 불평하였다. 이에 사도들은 일곱 사람을 따로 세워 구제하는 일을 맡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열중하게 되었다. 봉사자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디아코니아를 위해 세운 디아코노스였고 최초의 교회사회사업가들이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직제의 근거는 교회의 디아코니아를 위한 체계였음을 알 수 있다.

종교개혁 당시 칼빈은 마르틴 부서(Martin Bucer)의 영향을 받아 파렐(Farel) 등과 더불어 사회개혁과 도시의 디아코니아 개혁을 위하여 앞장선

²³ Jaap Van Klinken, *Diakonia: Mutual Helping with Justice and Compassion* (Grand Rapids: Uitgeversmaatschappij J. H. Kok B. V., and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26.

²⁴ Reinhard Turre는 구제를 위하여 집사가 선출되던 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제도화’(Institutionalisierung)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라인하르트 투레, “교회사의 전통에서 본 사회봉사,”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1992), 92.

종교지도자였다.²⁵ 칼빈은 1541년에 완성한 그의 『교회의 법령』(*Ecclesiastical Ordinances*)에서 교회의 직제를 목사, 장로, 집사, 교사의 넷으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집사의 직(職)은 봉사의 직으로 디아코니아를 위하여 전적으로 투입하였다.²⁶ 칼빈은 신약성서의 원리에 따라 집사로 하여금 봉사와 돌보는 일을 맡아 관리하게 하였고 집사의 직을 성경과 교부들의 전통에 따라서 “교인들로부터 매일의 적선금과 대여금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저축하고 도와주는 목회의 업무를 하는 자”²⁷라고 규정하였다.

이성회는 앞으로의 목회가 분명히 목회의 내향성보다는 외향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요청은 결국 목회자로 하여금 사회성에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미래 목회의 내용은 디아코니아의 발달일 것이라고 예언한다.²⁸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디아코니아로 집중해야 하며, 한국교회의 미래현상은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래 교회는 자기 중심적 교회관에서 타자에 대한 관심으로 그 중심이 이동할 것이며 한국교회에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러한 중심이동의 현상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형의 시도 가운데 가장 뚜렷한 면이 사회 봉사에 대한 교회의 목회적 관심일 것이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섬길 때에 비로소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를 외면하고 성장에만 치중하는 동안 사회는 교회와 멀어지고 그 결과로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게 되었다.

²⁵ 이성희, 254.

²⁶ John Moore and Ken Neff, *A New Testament Blueprint for the Church* (Chicago: Moody Press, 1985), 113-27. 이 책은 국내에서 번역되어 있다. 존 무어, 켄 네프, 『이제는 목회 방법이 거듭나야 합니다』, 한상석 역, 목회자를 위한 책 2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6).

²⁷ Calvin, *Institute*, IV, 4, 5. Ibid., 254에서 재인용.

²⁸ Ibid., 255-56.

III. 교회의 본질로서의 케리그마(κήρυγμα)와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

1. 용어연구

케리그마(κήρυγμα)란 단어는 “선포”(proclamation)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개역성경에서는 “전도”라고 번역되었는데 “선포되는 내용”과 “선포하는 행위”를 함께 나타낸다. 이 단어는 어간인 κηρυκ에 접미사인 μα를 붙인 것으로서 어간을 같이 하는 κηρύσσειν으로부터 “소식”(news), “선언”(declaration), “요구”(demand), “명령”(order), “신조”(decree), “추천”(command), “승리자의 선포”(proclamation of the victor), “명예로운 자들의 발표”(intimation of honours) 등의 의미들을 표현했다.²⁹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선구자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신약성경에서는 한 선구자 즉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선포한 내용과 그 행위가 케리그마이다.³⁰

이 단어가 사용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요나의 전도(κήρυγμα)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다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κήρυγμα)가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그는 “전도의 (kerygma)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개역)라고 말한다. 케리그마는 단순한 말의 전달을 넘어서서 “영과 능력”의 작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케리그마는 영원한 구원을 다루는 교리적 내용까지도 포함한다.³¹ 고린도전서 1장의 케리그마는 “십자가의 도”이다.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

²⁹ Gerhard Kittel,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714.

³⁰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Kerygma*, 432.

³¹ ὁ θεὸς διὰ τῆς μαρτίας τοῦ κηρύγματος σώσει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여주는 케리그마의 내용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이고 로마서 16장 15절에서도 역시 매우 분명한 내용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케리그마는 “복음을(내용) 세상에 나타내고(행위) 사람을 구원하는(능력)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케리그마의 신학적 의미

도드(C.H. Dodd)는 초대교회는 아주 맑고 깨끗하며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 즉 케리그마를 주었다고 주장한다.³² 교회는 또한 디다케(διδάχη: 교훈)나 인간적 가르침 파라클레시스(παράκλησις: 권고), 즉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에 관한 비공식적 대화에 주의를 준 것과 동시에 사람들은 케리그마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웨버는 케리그마의 의미를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그는 케리그마적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위’(Demonstration)를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보다 앞세웠다.

디도서 1장의 문맥에서 “자기의 말씀(λόγος)을 전도(κήρυγμα)로 나타내셨으니”(3절)라는 구절을 통해 볼 때 케리그마는 로고스를 명확히 나타내게 하는 행위이다. 말씀(λόγος)이신 예수께서 육신화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듯이(요 1:14),³³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선포자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말씀이 육신화하게 하신다. 따라서 케리그마는 말씀(λόγος)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형태(mode)이다.³⁴

³² C.H. Dodd,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s* (New York: Harper Collins, 1964), 8.

³³ “Καὶ 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καὶ ἐσκήνωσεν ἐν ἡμῖ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절은 그리스도의 수육(受肉: incarnation)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3. 케리그마와 교회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말씀(λόγος)을 통해 얻는다. 그러나 그 말씀은 케리그마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³⁵ 여기에서 케리그마는 인카네이션(incarnation: 受肉)과 만나고 인카네이션은 에클레시아와 연결된다. 교회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형상화시키는 공동체이고 이와 같은 사명이 케리그마인 것이다. 그래서 콜린 윌리엄즈(Colin Williams)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전체가 가시적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³⁶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그 가시화의 작업은 설교나 전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삼열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전도(선교), 교육, 봉사로서 이해하여 왔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서도 전도를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으로 이해하여 왔다고 지적했다.³⁷ 그러나 케리그마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시적으로 등장하게 하고 형상화는 작업이라면 설교와 전도는 케리그마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의 관계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디아코니아와 케리그마가 서로 공유되는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히스만은 “신약성경은 디아코니아(service)가 케리그마(preaching)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1세기의 교회 역사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한다.³⁸ 또 웨버는 “디아코니아의 과제는 예언자적 사명(케리그마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³⁹고 말한다.

³⁴ Kittel, 716.

³⁵ 웨버, 29-36.

³⁶ 콜린 윌리엄스, 『교회』, 이계준 역, 현대신학사조 IV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14.

³⁷ 이삼열, 9.

³⁸ Kathleen Heasman, *Christians and Social Work* (Gateshead: Northumberland Press Ltd. 1965), 102-3.

많은 사람들이 디아코니아에 있어서 예언자적인 기능을 빠뜨린다. 이사야 58장에는 예언자가 도전해야 할 일이 자기기만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만을 노출하고 폭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자적 전통을 이어 받으셨다. 그리고 그는 그 진리를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진리 그 자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공케를 일삼는 것’과 ‘말씀전하는 일’이 모두 섬김의 형태로 언급되고 있다. 영적인 것과 세사적인 것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들이 요구된 것이다.⁴⁰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지 간에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예언자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경험해야 다음에 나가서 케리그마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다. 케리그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일 케리그마라는 복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아나아간다면 반드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성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 웨버는 이와 같은 개념을 ‘복음의 세속적 타당성’(Secular relevance of the Gospel)이란 말로 표현했다.⁴¹ 결국 케리그마는 신앙의 이야기인데 이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증거 하는 것이 케리그마의 기능이라 한다면 디아코니아는 케리그마와 분리될 수 없다.

³⁹ 웨버, 29-37.

⁴⁰ 존 스토틀,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51.

⁴¹ 웨버, 35.

IV. 교회의 본질로서의 교제(κοινωνία)와 봉사(Διακονία)

1. 용어연구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는 ‘코이노노스’(κοινωνός: 동료, 참여자, 동반자)와 코이노네오(κοινωνέω: 분배하다, 대화하다, 참여자가 되다, 물질적 도움을 주고받음)로부터 나온 추상적인 용어로서 ‘참여,’ ‘기여,’ ‘분배,’ ‘대화,’ ‘교제’ 등과 같이 특히 밀접한 결속을 의미한다.⁴² 개역성경은 코이노니아 어군을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데 참여(12회), 교제(7회), 사귄(5회), 동정(2회), 동무(2회), 연보, 나눠주기, 나눠 가짐, 교통, 공급, 함께 속하심, 함께 하다, 동업자, 사귀는 자, 간섭(각 1회) 등으로서 이 번역들을 구분하여 ‘간섭,’ ‘함께 하다,’ ‘함께 속하심’을 ‘참여’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귄,’ ‘사귀는 자,’ ‘교통,’ ‘사귄’을 ‘교제’에, ‘동정,’ ‘연보,’ ‘나눠주기,’ ‘나눠 가짐,’ ‘공급’을 ‘구제’나 ‘헌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면 참여의 의미로 15회, 교제로 14회 구제의 의미로 6회 정도 쓰였다.⁴³ 코이노니아 즉 교제는 모두 남과 함께 하고, 활동, 이익이나 지출을 함께 나눔, 또 함께 교통할 수 있는 동등성의 측면, 함께 하는 관계성의 성질이나 생의 서약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⁴⁴

2. 코이노니아의 신학적 의미

앞에서 구분한 것처럼 신약 공동체에서 코이노니아는 세 가지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⁴⁵ 첫째는 참여(Partaking), 동참, 분담(Share)의 의미

⁴² J. Campbell, “κοινων- and its Cognates in the New Testam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LI, 32 (Dec 1932), 352-80.

⁴³ 오우성, “신약공동체의 코이노니아,” 『교회와 코이노니아』, 한국기독교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73-74.

⁴⁴ 한의신, 『신약성서의 코이노니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31.

⁴⁵ 오우성, 173-86.

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고후 1:7; 빌 3:10; 벧전 4:13), 핍박(마 23:30; 히 10:33), 제사나 성찬(고전 10:16, 18), 신의 성품(벧후 1:4), 영광(벧전 5:1)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교제(Fellowship)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고전 1:9), 하나님과의 교제(롬 8:30 확요), 성령과의 교제(빌 2:1; 고후 13:13), 믿음을 가진 성도와의 교제(몬 1:6), 동역자들과의 교제(갈 2:9 이 구절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의 교제를 나타낸다) 등으로 표현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사귀’이란 ‘코이노니아’로서 상관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⁴⁶ 코이노니아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인간적 결속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단순한 교제의 사실 이상의 것이 기술되어 있다. 코이노니아와 예코가 함께 사용될 때 보다 강력한 진술로서 표현이었다.⁴⁷ 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의미하는 용어였다. 아리스티데스(Aelius Aristides)의 연설(Orations)에 보면 인간은 신들의 식탁에 초대되었다⁴⁸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인간과 하나님이 한 식탁에서 그 희생 제물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헬라적인 것이었다.⁴⁹

코이노니아의 셋째 의미는 구제(collection)이다. 코이노니아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모금을 의미하는 바울의 독특한 용어였다(롬 15:31; 고후 9:1, 12, 13). 이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으로서,

⁴⁶ Ibid.

⁴⁷ 한의신, 31.

⁴⁸ “Καὶ θυσῶνμόνω τούτω θεῷ διαφερότως χοινωνοῦσι ἄνθρωποι τὴν ἀκριβὴ κοινωνίαν καλοῦντές τε ἐφ ἥσταν καὶ προιοτάμενοι διατυμῶνα αὐτόν,” Aelius Aristides, “Orations” 8 (I, 93) ed. W. Dindorf (1829), 한의신, 30에서 재인용.

⁴⁹ 한의신, 30.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물질의 도움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통일,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의미한다(롬 15:25-33).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의 동기는 신령한 것을 받은 자로서 물질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에 있었다(갈 6:6).

이와 같이 전통적인 교회론 중에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인 교회의 개념은 인간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상호간의 교제라는 교회이다. 이 교제는 근본적으로는 공동의 신앙고백, 동일한 성례전예의 참여, 그리고 한 교회의 질서예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⁵⁰

3. 코이노니아와 교회

케르(Hugh T. Kerr)는 코이노니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나타낼 때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교회)와 코이노니아라는 두 단어를 쓴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새로운 질서에 들어간 사람들을 의미한다. 한편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의미하는데, 이 교제는 사랑의 사회인 그리스도 공동체를 일으킨다.”⁵¹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는 서로 반대 방향에서 본 것이다. 전자는 신자가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관련되며 후자는 무엇을 향해 부름 받았느냐에 관련된다. 그런데 교회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부름 받았느냐’ 보다는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그 코이노니아로서 알려져야 한다. 케르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세상은 이러한

⁵⁰ 김용복,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적 시각,” 『교회와 코이노니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 한국기독교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년), 19.

⁵¹ Hugh T. Kerr, *Preaching in the Early Church* (New York: Fleming H. Revell, 1942), 150.

새로운 사회에 속한 자들을 ‘제3부류’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창출시키고 교회라고 불리는 것 안에서 그 자체를 실현시키는 공동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다.”⁵²

후프트(Visser 'T Hooft)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참된 교제가 복원된다”는 의미로서 해석하였고,⁵³ 메츠거(Bruce M. Metzger)는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가 병행하는 두 부분이 아니라 서로 동일한 것이며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았다.⁵⁴ 더나가서 차일즈(R. L. Childs)는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이기 전에 원래는 코이노니아였다”고 표현한다.⁵⁵ 이와 같은 생각들은 신약에서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모든 본질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지고한 코이노니아가 존재하지 않는 참된 교회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공동의 부르심에 대한 참여, 영적인 선물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참여함을 의미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는데 그 유기적 관계는 코이노니아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구절로써 가장 간명하게 표현된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분열되었던 바벨탑 사건이 거꾸로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진다. 오순절 경험은 모든 민족이 같은 언어를 경험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다.⁵⁶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회중은 더 이상 무형의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함께 살도록 하신

⁵² Ibid.

⁵³ Visser T. Hooft, *The Renewal of the Church* (Philidelphia: Westminster, 1956), 235-36.

⁵⁴ Bruce M. Metzger, “Paul’s Vision of the Church,” *Theology Today*, Vol. I (April, 1949), 54.

⁵⁵ R. L. Child, “Ekklesia and Koinonia,” *Baptist XV*, 356.

⁵⁶ George Webber, 23-44.

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Kerygma)을 한다.

바로 이런 코이노니아의 정신에서 에큐메니칼 토론은 진행되었다. 김용복은 이 토론이 코이노니아의 실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있다는 전제와 함께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교회들을 하나되게 하는 동력이라고 믿고 교회 안팎의 모든 분열과 갈등의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의 교회들을 하나되게 하려는 운동의 일환이었다”⁵⁷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일치를 위한 토론이요 운동이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이며 참된 코이노니아가 에클레시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4.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즉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한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선한 일들을 이해하고 실천될 때 가시화된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단순한 동정이나 일시적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 즉 디아코니아로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⁵⁸ 만약 코이노니아의 개념이 디아코니아와 연계되지 않으면 폐쇄적이고 계급적이며 특별계층의 사교로 전락하기 쉽다. 소극적 폐쇄적인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해는 교회로 하여금 탈 역사주의적 태도와 세상과 유리되게 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⁵⁹ 참된 코이노니아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협동, 고난과 노고 그리고 동정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교제의 정신을 전제로 할 때 구제와 같은 특정 형태의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교제의 원리는 항상 선물의 의미를 강조한다.⁶⁰

성경에서 구제헌금을 하는 것은 ‘카리스’(χάρις: 은혜)일 뿐 아니라,

⁵⁷ 김용복, 20.

⁵⁸ 오우성, 179.

⁵⁹ 박근원, 「교회와 선교」(서울: 종로서적 출판주식회사, 1988), 76.

⁶⁰ Marvin R. Vincent,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 I, 457.

‘디아코니아’라고도 불렀다. 이 단어는 자선사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쓰였다.⁶¹ 집사들(δίακονοι)의 본래 임무는 구제현금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또 연보는 ‘디아코니아’(διακοίνωσις)로 표현된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련 하에서는 은혜(χάρις)로 보인 것처럼, 외적이고 실질적인 표현인 코이노니아는 그 구제의 대상에 관련될 때에는 ‘디아코니아(διακοινία)가 된다.⁶²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10-14절에서 ‘기부’(κοινωνία)를 언급하는 말인 ‘섬김,’ 사역 또는 자금이란 말이 모두 디아코니아로 씌웠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교적 교제에서 타인들을 위해 수행된 섬김과 사역을 나타낸다.⁶³ 바울은 결코 이 코이노니아를 돈으로 생각하지도, 부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복종이며 공개적인 고백이다(고후 9:13). 그들의 연보는 이방신자들이 진정으로 신자들의 코이노니아에 들어왔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교제의 나타남의 영적 결과는 이러한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교회도 세상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그 몸을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코이노니아를 위한 디아코니아의 모델이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할 때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위해 디아코니아로 희생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교회의 세 가지 본질적 요소로서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가 디아코니아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절대적 관계임과 동시에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⁶¹ J. H. Barnard, *The Expositor's Greek New Testament*, vol. II, 85.

⁶² 한의신, 173-75.

⁶³ Ibid.

결론: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의 디아코니아적 접근을 통한 교회 본질성의 회복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을 세 개의 중요한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요 인격체이다. 교회는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케리그마는 교회가 말과 언어적 형태의 전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통하여 또 교회가 그 사회적 태도와 윤리적 결정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재현하고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행위 전체가 케리그마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런 개념에서 케리그마를 접근할 때 디아코니아적 사역은 필수적인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것이다.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정의와 평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디아코니아 없는 케리그마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가리”일 뿐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회를 시끄럽게 할 뿐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 그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다. 케리그마의 실패이다. 디아코니아와 케리그마는 분리될 수 없다.

코이노니아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신자들끼리의 교제의 영역을 넘어서 세상과 교회와의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것은 계층과 지역, 국가와 문화를 넘어서 하나되는 것이며 부자와 빈자, 남자와 여자, 사용자와 노동자, 교파와 교단, 더 나아가서 종교와 종교간의 교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제의 중심에는 디아코니아가 자리잡는다. 어떻게 기독교와 불교가 교제할 것인가?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확신하고 있는 두 체계가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동포

돕기를 통한 전 종교의 협력은 그 좋은 예라고 본다. 여기엔 참여와 나눔의 정신 그리스도의 성찬의 정신이 그 중심이 된다. 사회의 공통된 문제를 향하여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삶과 피를 나누어주신 것처럼 교회가 그 자신을 희생하며 나누어 줄 때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나눔의 행위 디아코니아가 없는 코이노니아는 불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교회의 갱신을 이루고 그 갱신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교회의 공신력과 위세를 회복하여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 5:9).

참고문헌

국내서적

- 김성철(1992),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사회사업의 방향성에 관한 일 고찰,” 『기독교사회복지』, 서울: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 김영국(1995), 『그리스도의 공동체』,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용복(1993년),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적 시각,” 『교회와 코이노니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 한국기독교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박근원(1988), 『교회와 선교』, 서울: 종로서적 출판주식회사.

- 박창환(1995), “신약성경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와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예수봉사단 자료집.
- 서정운(1992), “2000년대를 향한 선교신학,” 『신학과 교육』, 서울: 장신대 출판부.
- 오우성(1993), “신약공동체의 코이노니아,” 『교회와 코이노니아』, 한국기독교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성희(1997), 『미래사회와 미래교회-21세기 한국교회 메가 트렌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삼열(1992),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이원규(1992),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 조종남 편저(1990), 『로잔: 세계복음화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IVP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 한의신(1996), 『신약성서의 코이노니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번역서적

- 다이트리히 본회퍼(1997), 『나를 따르라』,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다이트리히 본회퍼(1967), 『옥중서간』, 고범서 역, 서울: 기독교서회.
- 라인하르트 투레(1992), “교회사의 전통에서 본 사회봉사,”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 조지 웨버(1989), “목회의 전문화와 영성,” 『목회의 전문화와 영성』, 제4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유니온학술자료원.
- 존 무어, 켄 네프(1996), 『이제는 목회 방법이 거듭나야 합니다』, 한상석 역, 목회자를 위한 책 2, 서울: 나침반 출판사.

존 스토트(1987),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콜린 윌리엄스(1982), 『교회』, 이계준 역, 현대신학사조 IV,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호켄다이크 J. C.(1997), 『흠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외국서적

Barnard, J. H. *The Expositor's Greek New Testament*, vol. II.

Campbell, J. "κοινων- and its Cognates in the New Testam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LI, 32 (Dec 1932).

Child, R. L. "Ekklesia and Koinonia," *Baptist* XV.

Dodd, C. H.(1964),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s*, New York: Harper Collins.

Ellul, Jacques(1967), *The Presence of the Kingdom*, trans. Olive Wyon, New York: Seabury Press.

Hooft, Visser T.(1956), *The Renewal of the Church*, Philidelphia: Westminster.

Kerr, Hugh T.(1942), *Preaching in the Early Church*, New York: Fleming H. Revell.

Kittel, Gerhard Ed.(1964),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Heasman, Kathleen(1965), *Christians and Social Work*, Gateshead: Northumberland Press Ltd.

Klinken, Jaap Van(1989), *Diakonia: Mutual Helping with Justice and Compassion*, Grand Rapids: Uitgeversmaatschappij J. H. Kok B. V., and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Kung, Hans(1971), *The Church*, London: Search Press.

Moore, John and Neff, Ken(1985), *A New Testament Blueprint for the Church*, Chicago: Moody Press.

Metzger, Bruce M. "Paul's Vision of the Church," *Theology Today*, Vol. I(April, 1949).

Vincent, Marvin R.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 I.

Waelfel, Tame W.(1970), *Bonfaeffer's Theology*, New York: Abingdon Press.

Arndt, William F.(1957), and Wilbur, F.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기타 자료

한미준 · 한국갤럽(1998), "한국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빛과 소금』, 11월호, 22-37.

문화체육부(1997), 『한국의 종교현황』.

기독신보, 1995년 10월 14일.

한국기독교공보, 1996년 2월 2일.